

최

근의 날씨처럼 우리 증권시장도 연일 10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록적인 고유가, 테러의 빈발 등 외부의 정치·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거 모든 투자자들에게 버겁게만 느껴졌던 주가지수 1000포인트는 이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시장은 600포인트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증권시장의 활황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 중심에 있는 코스닥에 대하여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는 물론 일반투자자들까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최근 몇 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더욱 강하고 탄탄한 기업으로 탈바꿈한 우리 코스닥 기업들의 노력과 땀의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젊은이의 희망이요,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이야기되는 코스닥시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코스닥시장은 이제

유년기를 벗어나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코스닥의 CEO들 가운데 연령이 40대 이하인 경우가 40%를 넘을 정도로 젊고 열정적이며, 그들은 대부분 코스닥 상장 이전엔 벤처 창업자들이었다. 이들은 밤낮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면서 우리사회에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도 과거 몇 년 동안 성장의 아픔을 견뎌내야 했다. 몇몇 기업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마치 코스닥 기업 전체의 일인 양 비판을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벤처기업들이 퇴출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코스닥시장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코스닥의 벤처

기업들이 작지만 더욱 강한 기업들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코스닥 벤처기업들을 위하여 우리 협의회가 할 일도 많은 것 같다. 짧은 기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은 안정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다. 경영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CEO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고민을 함께할 것이다. CEO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국내외 IR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 부분을 적극 홍보도 하겠다. 또한 코스닥 기업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회원사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에게도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인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제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의 꿈과 도전, 열정이 만들어낸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코스닥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자.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들이 코스닥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보다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에너지 축적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OVER THE VENTURE

벤처기업, 코스닥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자

글 _ 박기석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회장)